

BNK 경제인사이드

BNK 금융경영연구소

NO. 2015-06

(2015년 6월)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위원 (kmj9612@bnkfg.com)

동남권지역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및 취업자수 기준으로 전체산업의 각각 46% 및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 및 개인서비스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업종인 사업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동남권지역에서 2000년대중 서비스업 고용이 45만 2천명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전국의 8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남권지역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지역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사업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 등 생산현장 금융수요의 현지조달 등을 통해 역외지역에서 관련서비스를 상당부분 조달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오락·문화업 등 관광관련업종의 인근 업소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동남권지역 생산자서비스 비중 낮아

2013년 기준으로 동남권 서비스업의 명목 총부가가치는 97.8조원으로 지역 총부가가치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서비스업 비중은 72.1%로 서울, 대전 및 강원 다음으로 높지만 울산의 경우 16개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23.9%에 불과하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보면 동남권지역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건설업의 경우 5%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다.

동남권 서비스업 규모

(십억원, %)

구분	동남권				전국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총부가가치 ¹⁾	94,927	137,686	187,452	210,964	573,066	829,600	1,145,266	1,302,812
서비스업 ²⁾	44,832 (47.2)	65,187 (47.3)	86,219 (46.0)	97,830 (46.4)	332,910 (58.1)	495,874 (59.8)	684,407 (59.8)	778,284 (59.7)
부산	22,831 (69.6)	32,531 (70.0)	42,043 (71.6)	46,032 (72.1)				
울산	5,692 (25.3)	8,608 (25.8)	11,333 (23.2)	12,852 (23.9)		-		
경남	16,310 (41.2)	24,049 (41.5)	32,842 (41.1)	38,946 (41.7)				
제조업비중	40.8	40.9	45.1	44.4	28.9	28.3	30.8	31.1
건설업비중	5.0	6.1	4.5	4.9	5.9	6.4	5.1	4.9
기타 ³⁾ 비중	7.1	5.7	4.5	4.3	7.1	5.5	4.4	4.3
비중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명목가격 기준

2) ()내는 지역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3)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자료 : 통계청

세부업종별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생산자서비스(33.3%) 비중이 전국(41.2%)보다 크게 낮다. 특히 정보처리, 연구개발, 법무, 회계 등 지식기반업종인 사업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금융·보험업 및 통신업의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

반면 항만물류의 중심지, 해양관광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해운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동남권 서비스 업종별 비중 1)

(%)

구분	동남권				전국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유통서비스	30.0	26.4	24.8	23.6	24.2	21.3	21.5	21.3
운수	14.1	12.7	9.2	8.3	7.8	7.2	6.5	6.0
도소매	15.9	13.7	15.6	15.3	16.5	14.1	15.0	15.3
생산자 서비스	33.9	33.8	33.5	33.3	42.7	43.2	41.8	41.2
통신	4.3	4.6	3.2	2.7	7.5	7.9	6.6	6.5
금융·보험	8.1	9.5	9.8	8.6	9.7	10.8	10.5	9.2
부동산·임대	15.8	13.7	12.9	13.4	16.0	14.5	13.3	13.2
사업서비스	5.7	6.0	7.6	8.6	9.5	10.0	11.4	12.3
사회서비스	16.3	18.8	20.2	21.6	14.8	16.8	17.9	18.8
공공행정	11.2	12.1	12.1	12.8	10.5	11.4	11.5	12.0
보건·복지	5.1	6.6	8.2	8.8	4.3	5.4	6.4	6.9
개인서비스	19.8	21.0	21.5	21.5	18.3	18.7	18.8	18.6
숙박·음식	5.5	4.9	5.0	5.2	5.1	4.4	4.4	4.3
교육	9.3	10.7	10.7	10.6	8.2	9.3	9.3	9.1
오락문화·기타개인	5.0	5.4	5.7	5.7	5.0	5.0	5.2	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총부가가치(명목) 기준
 자료 : 통계청

한편 2000~13년중 세부업종별로 지역 5대 업종의 순위변화를 보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1,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운수업은 5대업종에서 제외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이 3위로 상승하였다.

동남권 5대 서비스업종 변화¹⁾²⁾

(%)

동남권				전국			
2000년		2013년		2000년		2013년	
업종	(비중) ³⁾						
도소매	(15.9)	도소매	(15.3)	도소매	(16.5)	도소매	(15.3)
부동산·임대	(15.8)	부동산·임대	(13.4)	부동산·임대	(16.0)	부동산·임대	(13.2)
운수	(14.1)	보건·복지	(8.8)	금융보험	(9.7)	사업서비스	(12.3)
금융·보험	(8.1)	금융·보험	(8.6)	사업서비스	(9.5)	금융·보험	(9.2)
사업서비스	(5.7)	사업서비스	(8.6)	운수	(7.8)	보건·복지	(6.9)
합계	(59.6)	합계	(54.7)	합계	(59.5)	합계	(56.9)

- 주 : 1) 총부가가치(명목) 기준
 2) 공공행정·교육 등 공적서비스 관련업종 제외
 3)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참고] 서비스업 분류

구분	대분류	세부업종
유통 서비스	운수업	육상·수상·항공 화물 및 여객 운송,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판매 및 차량용 연료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종합소매·음식료·의약품·의류·가전가구 등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등
생산자 서비스	통신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감정 등 관련 서비스업, 운송장비 및 산업용기계 임대업, 개인 가정용품 임대업 등
	사업서비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법무, 회계, 경영상담, 광고, 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시설유지관리, 고용알선, 경비, 청소 등)
사회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반공공행정, 사회서비스관리 행정(교육, 문화관광, 환경 등),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업, 수의업, 수용복지시설, 보육시설·재활원 등
개인 서비스	숙박 및 음식	관광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주점, 다과점
	교육서비스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
	오락문화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관련시설, 경기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오락관련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 노동조합·종교단체 등 회원단체, 수리업, 미용·욕탕·세탁 등 기타 서비스업

주 : 브로우닝과 싱글만(Browning & Singleman, 1978) 분류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

자료 : 통계청

부산, 운수·보건복지·숙박음식·도소매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나

부가가치 및 종사자 기준으로 입지계수¹⁾를 이용하여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거점도시인 부산의 서비스 업종별 특화정도를 보면 운수업,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오락문화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업은 부가가치 기준 1.84, 종사자수 기준 1.53로 입지계수가 가장 높았다. 그밖에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도 상대적으로 전국대비 높은 특화정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서비스 업종별 입지계수(LQ)¹⁾

구 분	부가가치	종사자수
운수	1.84	1.53
보건·복지	1.61	1.06
숙박·음식	1.44	1.08
도소매	1.44	1.12
부동산·임대	1.24	1.10
오락문화·기타개인	1.24	1.03
금융·보험	1.21	1.06

주 : 1)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 특정산업의 지역내비중 / 특정산업의 전국비중
 자료 : 통계청

1) 특정산업의 지역내 비중을 동 산업의 전국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동산업의 해당지역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2000년대 들어 전국 서비스생산중 동남권 비중 하락

동남권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부가가치 기준)은 2000~08년중 3.7%에서 2009~13년중 2.6%로 둔화되었으며 2014~15년중에도 서비스업 생산지수 기준으로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추세는 동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동남권지역의 서비스업 성장세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전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서비스업 거점도시인 부산지역의 경우 신장세가 동남권 평균치를 하회하여 동남권 서비스업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중 동남권의 비중은 2000년 13.5%에서 2013년 12.6%로 낮아졌다. 국내 전산업 부가가치의 경우 동남권 비중이 같은기간중 16.6%에서 16.2%로 소폭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와 같은 추세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남권 서비스업 성장률 1)

(%)

구분	동남권			전국		
	2000~08	2009~13	2014~15	2000~08	2009~13	2014~15
서비스업	3.7	2.6	2.4	4.5	2.9	2.5
(부산)	(3.3)	(1.9)	(2.4)	-		
(울산)	(4.1)	(2.9)	(2.8)			
(경남)	(4.0)	(3.4)	(2.5)			

주 : 1) 2000~08년 및 2009~13년은 총부가가치, 2014~15년은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
(2015년은 1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기준)

자료 : 통계청

유통 및 개인서비스업 성장세 크게 약화

세부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경기 위축으로 운수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도 2014년 이후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도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및 오락·문화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및 일부 오락관련업의 부진은 자영업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 지역의 자영업자수는 2010년 84만 8천명에서 2013년 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감소로 반전되어 2015년 1/4분기에는 82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수요 증가로 보건·복지 부문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도 저금리 영향에 따른 상가·오피스텔 등의 임대수요 증가로 최근 신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 서비스 업종별 성장률¹⁾

(%)

구분	동남권			전국		
	2000~08	2009~13	2014~15	2000~08	2009~13	2014~15
서비스업	3.7	2.6	2.4	4.5	2.9	2.5
유통서비스	2.9	2.2	0.7	3.5	4.1	1.6
운수	3.1	-0.5	1.4	4.3	2.8	3.0
도소매업	2.8	4.1	-0.1	3.1	4.6	0.1
생산자서비스	4.6	2.8	4.4	5.7	2.8	4.0
통신	9.6	0.8	-1.5	9.8	3.9	0.1
금융·보험	6.8	3.0	6.9	6.0	3.1	7.3
부동산·임대	2.1	2.1	7.6	3.7	1.1	6.1
사업서비스	5.9	4.4	4.5	6.2	3.7	2.5
사회서비스	3.1	4.3	6.8	3.6	4.0	6.9
공공행정 ²⁾	2.7	2.7	-	3.4	2.7	-
보건·복지	3.9	6.7	6.8	4.2	6.2	6.9
개인서비스	3.7	1.2	-0.1	4.0	1.2	0.1
숙박·음식	3.3	2.0	-0.3	2.9	0.8	0.3
교육	3.1	0.8	0.1	3.9	1.0	0.8
오락문화·기타개인	5.7	1.2	-0.2	5.3	1.9	-0.7

주 : 1) 2000~08년 및 2009~13년은 총부가가치, 2014~15년은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 (2015년은 1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기준)

2) 서비스업생산지수 분류에는 미포함

자료 : 통계청

2000년대중 서비스업이 고용증대 주도

2014년 기준 동남권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49만명으로 동남권지역 전체 취업자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75.2%이며 다음으로 경남(57.5%), 울산(54.6%)순이다. 부산의 경우 16개시도중 서울(84.0%), 대전(80.0%) 다음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으며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권에서 서비스업 생산비중은 200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취업자 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2000~14년중 동남권 총취업자수는 41만 6천명 늘어났는데 서비스업에서만 45만 2천명 증가하여 이 기간중 지역의 고용증대를 서비스업에서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는 같은기간중 경남에서 21만 8천명, 부산에서 16만 4천명, 울산에서 7만명이 늘어났다.

동남권 산업별 취업자 규모 및 비중¹⁾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총취업자수	3,429	3,588	3,641	3,845
서비스업	2,039 (59.5)	2,230 (62.2)	2,346 (64.4)	2,491 (64.8)
부산	1,090 (66.8)	1,182 (72.8)	1,167 (74.1)	1,254 (75.2)
울산	228 (55.2)	252 (51.1)	326 (61.0)	298 (54.6)
경남	721 (53.0)	796 (54.1)	853 (55.6)	939 (57.5)
제조업 비중	24.8	22.5	22.8	23.8
건설업 비중	6.9	7.5	6.9	6.4
기타 ²⁾ 비중	8.8	7.9	5.8	4.9

주 : 1) ()내는 지역내 총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아

2013년 기준 동남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4,756만원으로 전국(5,514만원)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의 전국대비 비율은 2000년 84.3%에서 2013년 86.3%로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4,591만원), 울산(4,711만원), 경남(5,014만원)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노동생산성이 동남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¹⁾

(만원)

구분	2000	2005	2010	2013
전국	3,506	4,592	5,319	5,514
동남권	2,957	3,891	4,576	4,756
(부산)	(2,902)	(3,805)	(4,520)	(4,591)
(울산)	(3,164)	(3,998)	(4,476)	(4,711)
(경남)	(2,969)	(3,975)	(4,687)	(5,014)

주 : 1) 노동생산성 = 서비스업 부가가치 / 서비스업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부산 서비스업중에서 숙박·음식업(1,658만원) 및 오락문화·기타개인서비스업(2,768만원)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업서비스의 노동생산성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구분	종사자수 (명)	비중 (%)	부가가치 (백만원)	비중 (%)	노동생산성 (만원)
합계	1,297,862	100.0	64,180,236	100.0	4,945
서비스업	1,005,690	77.5	46,172,567	71.9	4,591
유통서비스	322,267	24.8	12,503,885	19.5	3,880
운수	104,785	8.1	4,387,332	6.8	4,187
도소매업	217,482	16.8	8,116,553	12.6	3,732
생산자서비스	213,849	16.5	15,480,479	24.1	7,239
통신	15,320	1.2	1,268,330	2.0	8,279
금융·보험	50,340	3.9	4,306,349	6.7	8,555
부동산·임대	34,742	2.7	6,332,290	9.9	18,227
사업서비스	113,447	8.7	3,573,510	5.6	3,150
사회서비스	135,781	10.5	8,501,464	13.2	6,261
공공행정	40,342	3.1	4,309,953	6.7	10,684
보건·복지	95,439	7.4	4,191,511	6.5	4,392
개인서비스	333,793	25.7	9,686,739	15.1	2,902
숙박·음식	145,525	11.2	2,412,361	3.8	1,658
교육	97,432	7.5	4,760,070	7.4	4,886
오락문화·기타개인	90,836	7.0	2,514,308	3.9	2,768

주 : 2013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제조업 부가가치의 지역내 선순환, 업계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

IMF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이 위기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동남권 경제가 저성장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동남권지역의 서비스업은 고용의 65%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의 86%에 머물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동남권지역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지역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생산자서비스중 지식기반업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연구개발, 법무, 회계, 광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지역 사업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의 75%로서 서비스업 전체의 86%보다 훨씬 낮은 데서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기업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역외지역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대기업 본사 또는 재무팀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여 금융거래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권 부가가치 규모는 전국의 16.2%(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전국의 11.8%에 불과하다. 지역의 대기업은 지역 생산현장의 금융수요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지역내 선순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오락·문화업 등 관광관련업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인 소비관련업종으로서 지역특색을 살리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영세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의 경우 인근 업소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관련업종의 경우 인근 업소가 공동으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작업 등을 추진하여 매력적인 구역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업소에 관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범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자인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로 서비스업의 품질, 특화도, 지역의 이미지 등은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BNK키다리아저씨 Mr. B와 친구들 비엔케이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Beyond No.1 in Korea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